

The future of mobility 2050



[목차]

- 1. Self-Charging Solar Powered Electric car
- 2. Platform-sharing
- 3. Autonomous driving
- 4. Vehicles of the future

1. Self-Charging Solar Powered Electric Car

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



- ☑ 희소가치, 성능 및 품질/연비 중심에서 친환경과 안전성/편의성 동시 구현의 산업변화
-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중 수송부문에 가장 높은 24.6% 감축 목표 설정







2/1 실제 적용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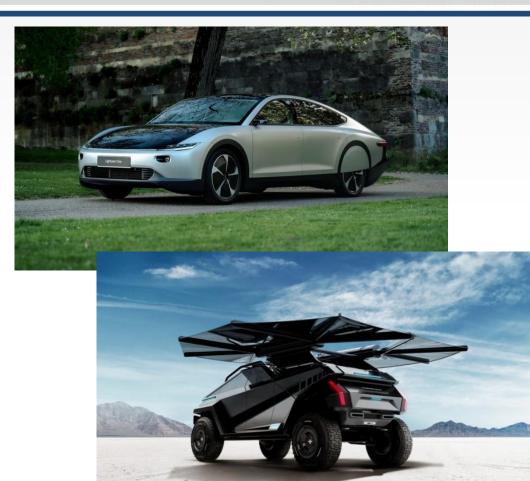


☑ 독일의 경우 '19년 초에 자가 충전 방식 자동차 출시 상시 충전으로 30km/day 주행거리 확보

☑ 국내에서도 지속가능 에너지로 고출력/고효율/친환경 전기자동차로의 변화가 시급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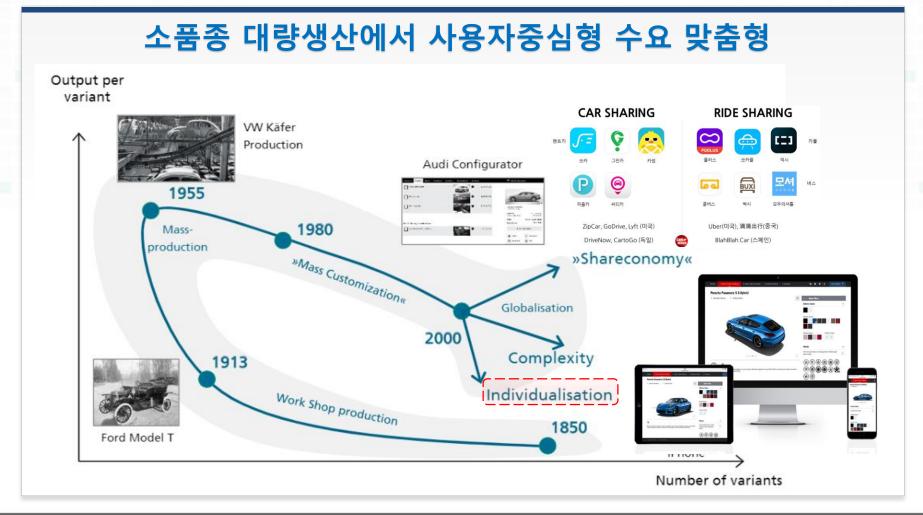


2. Platform-sharing

1_{/2} 온디멘드(On-Demand) 모빌리티 시장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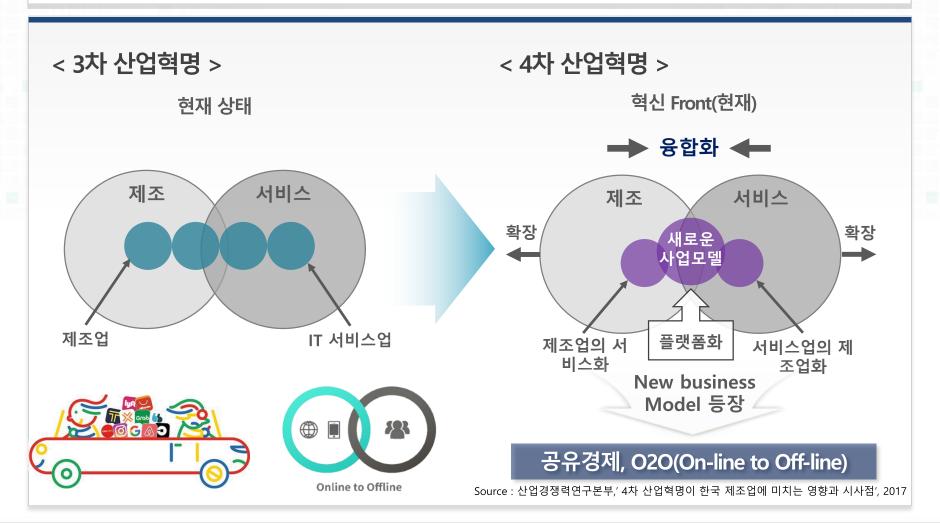
- ☑ 친환경 EV Platform 기술확산 →완성차업체 위주 시장에서 IT/스타트업 등 합종연합으로 재편



2/2 4차 산업으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 현황



- ☑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
- ☑ 산업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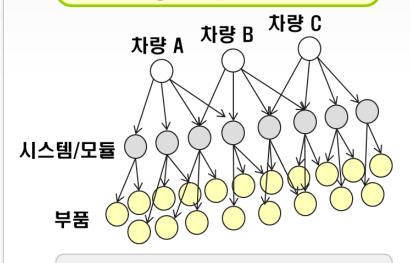
3_{/2} 부품 및 차량 부품 표준화를 통한 차량 개발



- ☑ 기술의 발전의 정점은 표준화와 단순화이고 차량개발은 레고형 조립식으로 변경
- ☑ 표준부품 사용으로 다양한 차량 개발

기존 개발 방식

(하향 접근식 신차 개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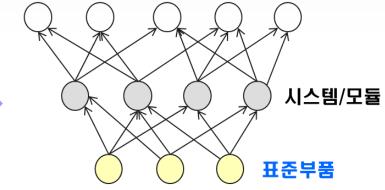


차량개발시 마다 부품 사양수 지속 증대

레고형 차량개발 방식

[상향 접근식 신차 개발]

차량 A 차량 B 차량 C 차량 D 차량 E



표준부품 사용으로 다양한 차량 조기 개발 가능

4/2 부품 및 차량 부품 표준화를 통한 차량 개발



- ☑ 레고형 표준 부품을 통한 다양한 차량 개발
- ☑ 고객의 니즈에 맞게 차량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개발시간 단축









5/2 차량 플랫폼 표준화를 통한 차량 개발 사례



- ☑ 레고형 표준부품을 활용한 다양한 차종 신속대응
-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량 플랫폼 설계 가능

친환경 자동차 제조기술의 플랫폼화

< 친환경 차량 부품수 감소 >

총부품수30,000여개

• 내연기관 차

- 전기차 부품 평균
- ✓ 전장품 ✓ 차체 ✓ 기타

현가제동

- **37**% 감소
- 총부품수18,900여개

● 친환경 자동차

- 구동조활 ▽36% ✓ 전장품 ▽30%

✓ 기타

< 차량 산업 공급망 변화 >

친환경 자동차 모듈화 플랫폼화

내연기관

✓ 구동조활

소재·부품업체

완성차 업체



소비자





전기차

소재·부품업체

완성차업체 플랫폼



중소전기차업체







오픈플랫폼

소재. 부품업체 협동조합











친환경자동차 제조플랫폼 현황

폭스바겐 'MEB'



- 차량의 기본구조 → 모듈러 방식 제작 가능 (개발비 저감, 부품공유)
- 세계 최초 전기차 '오픈 플랫폼'
- 플랫폼 무상 제공 (주도권 확보)

플랫폼 공급 기업







- 플랫폼 기술 표준 선점
- ✓ 영향력 증대로 시장 장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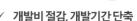




다품종·소량 생산기업

e.GO





- ✓ 재료비 절감, 생산 효율 향상
- ✓ 품질확보,AS 효율 향상



'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활성화 중'

6_{/2} 차량 플랫폼 표준화를 통한 미래 차량 개발 기술



- ☑ 하나의 차량 플랫폼 개발을 통한 다양한 차종 개발
- ☑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차량 플랫폼 제공



7/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사례





3. Autonomous driving

1/3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



- ☑ 운전자가 판단하는 주행에서 차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주행
- ☑ 운전자는 차량의 조종에 개입하지 않으며, 차량은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 가능



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동향



- (시장전망) 북미 유럽 중심 2025년 이후 급성장 예측
- ☑ (산업동향) 2024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이후 완전 자율주행 시장 예측
 -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구성요소별 차량완성, 스마트도로 및 네트워크 구축, 가이드 라인 설계 등 자국기술·표준의 세계시장 선도·선점을 위해 노력
 - 유럽, 미국, 일본, 중국, 한국 등 주요국은 NCAP*에 ADAS**기술을 평가 항목으로 채택 혹은 장착을 의무화
 - * New Car Assessment Program, 신차 안전도 평가
 - **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,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
 - •규제가 적은 북미·유럽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 형성 후 2025년부터 10년간 급성장 예측(IHS, '16)

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2031년	2032년	2033년	2034년	2035년	CAGR (%)
23.0	27.1	32,0	36,5	43,0	50,8	59,9	70.7	83,5	98.5	118,0	18

※술저 : HS Automotive

- 자율주행 시스템 국내 시장이 본격 형성되고 있으나.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
- 자율주행산업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
 - → 대기업-부품업체간 기술개발 협력으로 자율주행차 필수 구성요소(센서, 통신, 제어) 등 핵심부품 가격·성능 경쟁력 확보를 추진 중
 - → 2024년까지 레벨3 수준의 기술 확보 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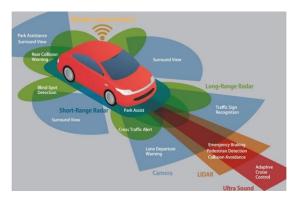
시장 현황 및 전망]

3/₃ 자율주행 필요기술



- ☑ 차량 내부 제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무진동 형태의 능동적 서스펜션 기술
- ☑ 센서, 제어기, 액추에이터, 라이다, 레이더 등 고성능 센서와 안전기능이 확보된 자율주행 기술

자동차 제어기술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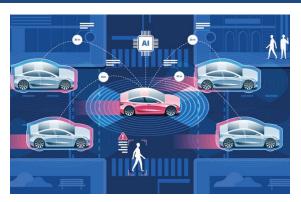


환경 인식용 고성능 센서



Active Suspension

자율주행 인프라



자율주행 인공지능



V2X 통신망 연결 관제센터

4/4 자율주행 기술적용 Concept Vehicle



- ☑ 차량이 사용자에게 이동하여 신 서비스 제공
- ☑ 차량 내부공간을 창고, 휴식공간, 판매공간 등으로 사용 가능

도요타 e-Palette





다품종 차량의 서비스 공간화



레스토랑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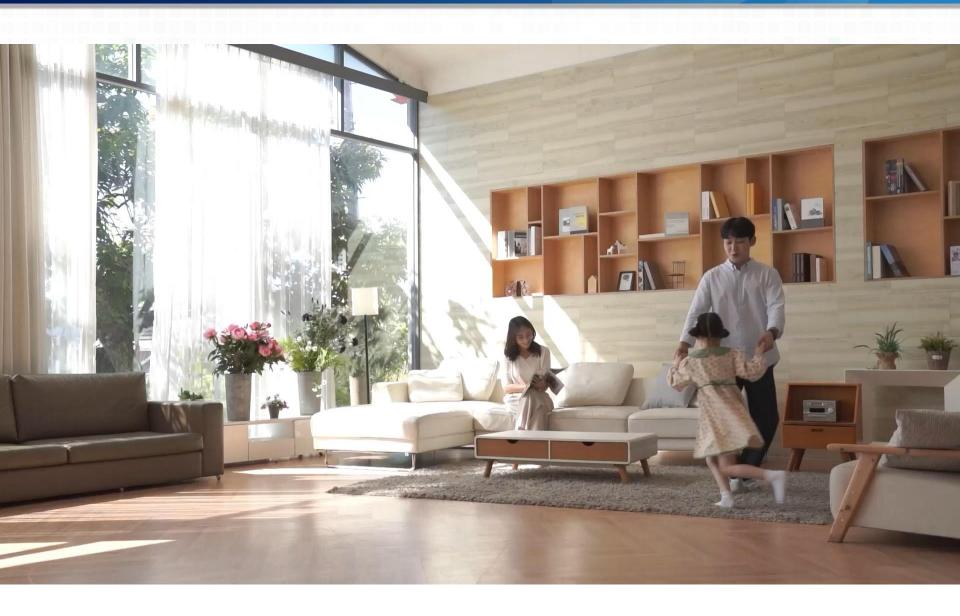
정비소



호텔

/4 자율주행 사례





5/4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



-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효율 증대
- ☑ 기술 개발 추진력 향상 및 신 산업 창출

생활 편의성 향상

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이동하던 패러다임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

신산업 창출

자율주행 요소 부품인 카메라, 라이다 등의 센서와 프로세서, 메모리, 저장장치 등 연산장치의 필요성 향상



사회적 효율 증대

인간보다 효율적인 운전을 통해 경로 최적화, 교통체증 감소, 에너지 효율 증가 등을 통해 사회적 효율 증대

4차 산업혁명

소프트웨어 기술력 향상으로 4차 산 업혁명 및 AI와의 시너지 효과 발생

4. Vehicles of the futu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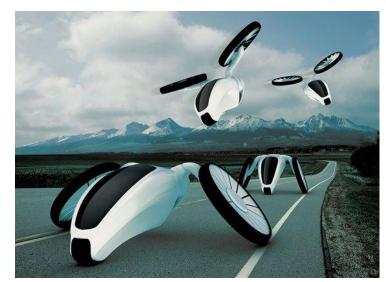
2050년의 자동차는?











감사합니다.